

2018 대전시 성평등지수 분야별 분석, 가족관계 만족도

당신은 가족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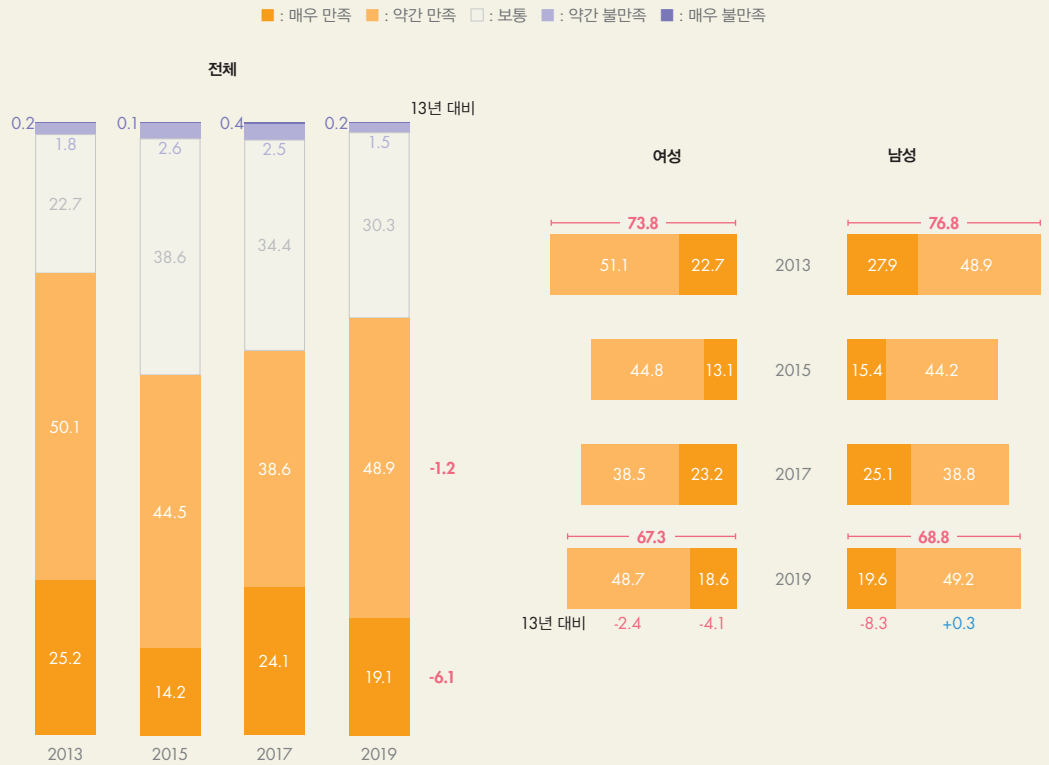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매년 측정·발표하는 지역성평등지수는 8개 분야,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이래 줄곧 '상위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의 2018년 기준 성평등 지수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분야가 있다. 바로 '가족' 분야이다. '가족' 분야는 2016년 3위에서 2017년 9위로 하락하더니 2018년 15위에 그치면서 하위권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하락의 주된 원인은 '가족'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¹⁾ 중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와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성비'의 감소에 의한 영향이 크다.²⁾ 특히 '가족관계 만족도'는 2017년과 2018년 16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대전시 2019 사회조사를 활용해 대전시민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어떤 변화를 보였으며, 다양한 가족관계에 대해 남녀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전시민 비율, 2013년 대비 7.3%p 하락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한 대전시민 비율은 2013년 75.3%(매우 만족 25.2%, 약간 만족 50.1%)에서 2015년 58.7%(매우 만족 14.2%, 약간 만족 44.5%)로 떨어졌다가 소폭 상승해 2019년 68.0%(매우 만족 19.1%, 약간 만족 48.9%)로 나타났으나 2013년과 비교해 7.3%p 하락한 수치이다. 2019년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매우 만족'하는 여성 비율은 18.6%(2013년 대비 -4.1%p), '약간 만족' 비율은 48.7%(2013년 대비 -2.4%p)로 2013년에 비해 6.5%p 감소했다. 남성 중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19.6%(2013년 대비 -8.3%p), '약간 만족' 비율은 49.2%(2013년 대비 +0.3%p)로 2013년과 비교해 8.0%p 하락했다. 2013년 대비 변화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도의 하락폭이 크지만 여전히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낮았다.

대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단위: %



•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2013년 대전시 사회조사부터 실시되었음
 •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의 비율을 합해 '만족'으로,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의 비율을 합해 '불만족'으로 해석함
 • 출처: 대전광역시, 각 연도 「사회조사」 대전광역시, 「2019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1) 가족 분야 세부 지표: ① 가사노동 시간 성비, ②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③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성비, ④ 유아휴직자 성비
 2) 상세한 2018년 기준 분야별 대전의 지역성평등지수는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 97호를 참고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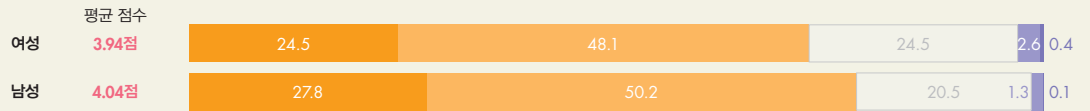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남녀 간 의미 있는 차이 보여

단위: %
 ■ : 매우 만족
 ■ : 약간 만족
 □ : 보통
 ■ : 약간 불만족
 ■ : 매우 불만족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6가지 가족관계별로 대전의 여성과 남성 간 만족도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배우자[t=5.424***(.000)], 자녀[t=-2.257*(.024)], 배우자의 부모[t=4.132***(.000)], 배우자의 형제·자매[t=6.001***(.000)]에서 평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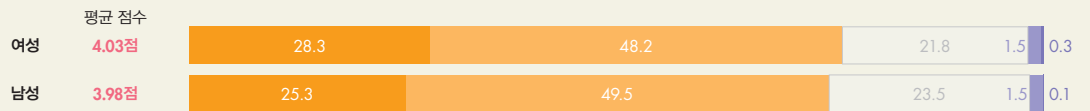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2019)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만족도 평균 점수(5점 만점)는 각각 3.94점, 4.04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0.1점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6가지 가족관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2019)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여성 4.03점, 남성 3.98점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0.05점 높았으며, 6가지 가족관계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자기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2019)

본인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점수는 여성 3.95점, 남성 3.94점으로 남성과 비교해 여성(남성 대비 +0.01점)이 미미하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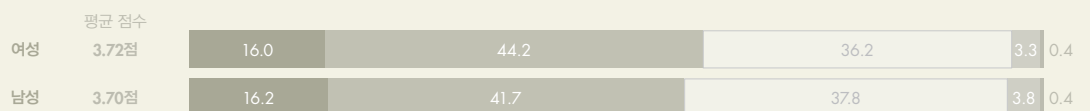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2019)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 평균은 3.53점, 남성 3.63점으로 남성(여성 대비 +0.1%p)이 근소한 차이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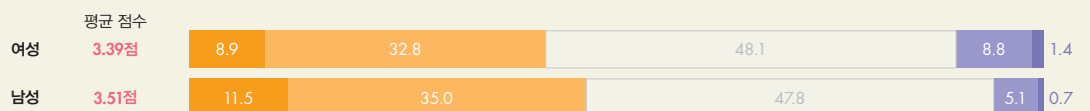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2019)

본인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점수는 남성이 평균 3.70점이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0.02점 높은 3.72점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2019)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관계 만족도는 여성 3.39점, 남성 3.51점으로 남녀 모두 6가지 가족관계 중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보였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0.12점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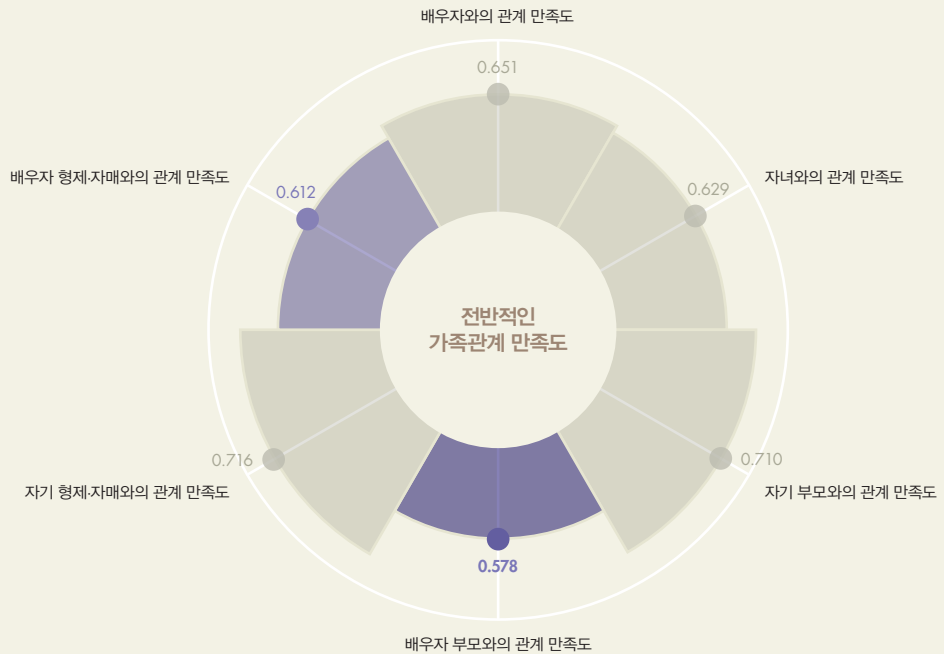
•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의 비율을 합해 '만족'으로,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의 비율을 합해 '불만족'으로 해석함
 • 점수는 5점 척도로 평균한 값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p<.05, **p<.01, ***p<.001
 • 출처: 대전광역시, 『2019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와
상관 정도 가장 낮아**

대전 여성들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와 6가지 가족관계는 서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관계 정도는 상관계수(r)로 표시되며, -1.0에서 0, 0에서 +1.0 사이의 값을 취한다. 상관계수가 0일 때는 대상 간에 아무 관련성이 없음을 의미하며, -1 또는 1에 가까워질 수록 관련성이 더 크다.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관계별 상관관계- 여성(2019)

대전 여성은 배우자, 자녀, 자기 부모,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등 6가지 가족관계에서 만족할수록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게(정적 상관관계) 나타났다.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와 관련 정도가 낮은 순으로 보면, 배우자 부모[r=0.578***(.000)]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배우자 형제·자매[r=0.612***(.000)], 자녀[r=0.629***(.000)], 배우자[r=0.651***(.000)], 자기 부모[r=0.710***(.000)], 자기 형제·자매[r=0.716***(.000)] 순이었다.



- 상관관계(correlation)란, 변수와 변수 간 관계로 한 변수가 커지거나(높아지거나) 작아질(낮아질)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변동의 크기와 정도, 방향을 알려주는 분석임
- 상관계수(r)의 양(+)의 값을 가질 때는 증감 방향이 같은 정적 상관, 음(-)의 값을 가질 때는 증감방향이 반대인 부적상관이라고 함
- 분석할 변수가 모두 '5점 척도 변수(등간 척도)'이므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적용한 이변량 상관관계 방법을 사용함
- *p<.05, **p<.01, ***p<.001
- 출처: 대전광역시, 「2019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3.8 세계 여성의 날 # EachforEqual # 대전세종연구원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각자의 자리에서 성평등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지난 3월 8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은 이벤트를 진행했다. 올해 캠페인 주제인 '#EachforEqual'을 붙인 드립백 커피를 직원들에게 나눠 주면서, 3.8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3.8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으며, 1977년부터 UN은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2020년 캠페인 주제인 '#EachforEqual'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